

게르쥘과 체르니셰프스끼의 사상적 연속성과 극복 — 『누구의 죄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박 해 경*

1. 서론

러시아 철학은 18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구화되기 시작한다. 발단은 스타판 게비치(Станкевич)가 1831년에 독일철학, 특히 셸링과 피히테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철학서클에서 비롯되었지만, 서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벨린스끼(Белинский), 게르쥘(Герцен), 바쿠닌(Баку닌) 등이 중심이 되어 헤겔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1840년대부터이다.¹⁾ 그들의 초기저작에서는 헤겔 철학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발전론에 근거한 역사의 합법칙성, 즉 역사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이상주의가 발견된다. 때로는 사변론으로 때로는 정치적 경향성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 철학의 저변에는 항상 러시아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러시아가 세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헤겔이 주장한 절대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역사 발전론을 러시아의 현실에 적응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정치현실은 곧 그들로 하여금 헤겔에 대한 숭배로부터 깨어나게 만든다. 물론 이들에게서 헤겔 철학의 관념성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격렬한 사회 비판과 파괴적인 혁명 운동으

*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서구주의철학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디, 제임스(1992) 외 엮음 『러시아 철학 I』, 정혜창 역, 서울: 고려원, 283-289쪽 참조하였음.

로 특징 지워지는 다음 세대들보다 그들은 “덜 물질적, 덜 과학적이었고, 더 이상적, 더 관념적”²⁾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린스끼도 게르젠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관념론과 사변론에만 머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문학 비평가 벨린스끼는 당대 문학을 정치 참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고, 사상가이자 편집자인 게르젠은 자신의 잡지를 통해 젊은 지식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의식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들이 헤겔을 극복하는 데에는 포이에르바흐의 기독교 비판과 헤겔 좌파 사상의 영향이 컸다. 그들은 인간은 역사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관심을 인간에 대한 연구에 쏟아 부었다. 헤겔은 인식의 정도를 논하면서 유일한 현실 세계, 유일하게 올바른 인식은 우주의 절대 정신이라고 보았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기독교적 신과는 차이를 가지는 절대 정신은 인간 전체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조차도 절대 정신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벨린스끼와 게르젠은 개인을 주관적 정신의 과정으로, 우주와 역사를 포괄적 정신의 과정으로 보는 것에 반기를 든다. 그들은 개인이 역사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역사의 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은 결코 국가에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단지 개인의 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다.³⁾

이처럼 개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찬양하며 개인주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40년대 철학자들은 그들의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반역자이기도 한 60년대의 허무주의 사상가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 60년대 세대는 공리주의와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가한다.⁴⁾ 60년대가 보기에 40년대는 지나치게 관념적이었다. 그들은 “사물을 과학적,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심미적, 추상적으로 보는 경향”⁵⁾이 있었다. 40년대 세대의 사상적 선조는 제까브리스트(Декабристы)의 자유주의 사상이었지만⁶⁾,

2) 같은 책, 287쪽.

3) 벨린스끼와 게르젠의 개인주의적 견해들은 헤겔의 절대적인 관념주의의 “비개인주의”에 대한 의도적인 반대였다. (같은 책, 287쪽.)

4) 60년대 허무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였음. 이디, 제임스(1992)의 엮음 『러시아 철학 II』, 정해창 역, 서울: 고려원.

5) 같은 책, 12쪽

6) 게르젠과 그의 친구 오가료프(Огарёв)는 자신들을 제까브리스트(Декабристы)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1827년 모스크바 근교에서 평생을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로 서로

니콜라이 2세의 지독한 반동 치하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한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유럽으로 망명하고 만다. 반면 60년대 세대는 반동의 시대를 몸소 체험하고 자라면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행동력이 강해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 졌다. 서구주의자들이 독일 관념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고 사상의 많은 부분을 헤겔 철학에 빚지고 있었던 데 비해, 허무주의자들은 포이에르바흐와 프랑스 사회주의, 독일의 속류 유물론자들의 영향을 받아 강한 행동력을 수반한 사상가, 혁명가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그들은 자연과학적 인식에 따라 인간을 자연법칙에 지배받는 단일 유기체로 파악하고 어떠한 정신이나 영혼도 거부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 사상가 체르니셰프스키(Чернышевский)는 “인간이란 엄격하게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복잡한 화학 합성물”⁷⁾이라고 정의 내린다. 단일 유기체로서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법칙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40년대와 60년대의 차이는 연속성 속에서의 차별성, 혹은 실천적 계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40년대가 자유주의자, 관념론자로, 60년대가 허무주의자, 유물론자, 공리주의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상적 변화 발전의 과정은 헤겔에서 포이에르바흐로, 그리고 유물론과 공리주의로의 유사한 전이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들의 현실 인식론 자체는 많은 부분 서로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0년대의 관념론자 게르젠과 60년대의 공리주의 유물론자 체르니셰프스키 사이의 사상적 연관성과 극복, 실천적 계승의 문제를 그들의 소설 『누구의 죄인가?』(『Кто виноват?』)와 『무엇을 할 것인가?』(『Что делат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게르젠이나 체르니셰프스키는 모두 당대에 소설

맹세하였다.

7) 이디, 제임스, 『러시아 철학II』, 16쪽.

8) 이것을 합리적 이기주의, 혹은 이기적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데, 이점에서 그들은 영국 공리주의의 영향 또한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9) 푸르케네프가 이들의 연속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0) 그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 만났을 뿐이지만, 체르니셰프스키는 게르젠의 저작들을 읽으며 성장했고, 그를 자신의 스승으로 간주했으며, 게르젠의 사상과 결별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게르젠과 같이

가로서보다는 사상가, 철학자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소설을 사상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끈다. 그들의 소설가로서의 재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소설이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특히 체르니셰프스키 소설의 경우 소설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타 수많은 철학적 논문과 저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¹¹⁾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두 소설가의 사상가적 면모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2. 게르쥘과 체르니셰프스키

게르쥘은 평생동안 자유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다.¹²⁾ 젊은 시절의 낭만적 열광은 헤겔 철학과의 만남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상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지만, 그는 헤겔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한때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서구주의자로서 유럽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프랑스 2월 혁명의 실패는 그로 하여금 유럽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했다. 역사적 합법칙성이라는 헤겔의 원칙을 추종하던 그가 이제 역사에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역사는 영원히 즉흥적이며, 각 세대는 그 자체로써 끝나고, 역사는 이성이 아니라 우연과 맹목적 힘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그 후 게르쥘은 유럽에 대한 환멸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해 간다. 러시아의 농민공동체(община)에 바탕을 둔 ‘러시아 사회주의’ 사상이 그것이다. 그는 슬라브주의자들처럼 공동체의 자치 원칙과 구성원들간의 자발적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서구주의자인 게르쥘이 슬라브주의

강렬한 메시지 전달의 효과가 있는 의문문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만 하다.

11) 체르니셰프스키는 결코 위대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Copleston, F. C.(1986) 『*Philosophy in Russia: From Herzen to Lenin and Berdyaev*』,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 110.

12) 게르쥘의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음. Walicki, A.(1980)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Oxford: Clarendon Press, pp. 127-179.

자들의 주된 사상인 농민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럽의 과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수단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 창조적 이성과 의지의 존재인 인간에 대한 믿음은 항상 그의 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인간이 진정 이성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농민공동체’와 같은 공동사회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인간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자치와 자발만으로 훌륭하게 운영되는 러시아 농촌의 농민공동체가말로 게르젠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공간이라 할 것이다.

게르젠은 일반적으로 “혁명운동의 귀족주의적 단계를 마감하고, 자신이 ‘노동광풍을 몰고 오는 젊은 조타수들’이라고 불렀던 잡계급 혁명가들의 시대를 개막”¹³⁾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스스로 1825년 제까브리스트의 후계자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던 귀족출신의 자유주의 사상가 게르젠은 다음 시대에 등장할 체르니셰프스끼를 비롯한 잡계급 혁명주의자들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들 잡계급 지식인들은 자신들을 40년대 세대와는 차별화시키고자 하였다. 벨린스키, 게르젠, 바쿠닌 등이 독일 관념론에 강하게 매료되었던데 반해서, 60년대 세대들은 사색적인 철학을 거부하고 대신 과학과 공리주의 윤리학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상적 기원에 뿌리내리고 있다. 60년대 대표적 지식인이자 민중들의 영웅이었던 체르니셰프스끼의 사상적 발전은 게르젠과 마찬가지로 헤겔에서 포이에르바흐로,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르젠은 헤겔의 변증법을 포이에르바흐를 통해 극복하고, 생-시몽과 푸리에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체르니셰프스끼는 젊은 시절 사회, 경제적 사상으로는 푸리에가 중심이던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을, 철학적으로는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또한 체르니셰프스끼는 러시아 사회주의의 핵심으로 농민공동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게르젠을 따르고 있다. 그는 러시아 민중들에게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요소들과 농민공동체에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¹⁴⁾

13) 아니킨, A(1994) 『러시아 사상가들: 18, 19세기 러시아 사회, 경제 사상』, 김익희역, 서울: 나남출판, 251쪽.

14) 두 사람이 농민공동체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킨은 그 성격에서 차이

체르니셰프스끼는 러시아 허무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철학적인 체계로 끌어 올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⁵⁾ 그도 처음에는 셸링이나 헤겔에 이끌렸지만 곧 그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1850년부터는 관념론과 완전히 결별한 후 포이에르바흐의 철학적 유물론, 무신론, 사회주의로 급속하게 이동해 간다. 1855년에 발표된 그의 학위 논문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는 헤겔 미학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헤겔의 관념론은 예술을 실재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¹⁶⁾ 진정한 아름다움은 삶 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삶의 미를 완벽하게 재생해 내는 것이다: “아름다운 존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식에 따른 당위적 생활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아름다운 대상은 스스로에게 생활을 보여 주거나 우리에게 생활을 상기시켜 주는 대상이다.”¹⁷⁾ 이것이 체르니셰프스끼가 말한 예술의 공리적인 목적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예술의 공리란 이전 세대에 시작된 헤겔 극복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체르니셰프스끼는 게르젠의 사상적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0년대와 60년대가 ‘아버지와 아들’ 세대로 일컬어지듯이, 체르니셰프스끼의 사상은 게르젠에 대한 존경과 극복으로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동철학적인 면에서도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전체정과 농노제 폐지를 강력히 원했으며, 농민들의 계몽활동에도 주력했던 혁명적 계몽가들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르젠과 달리 체르니셰프스끼는 러시아의 예외성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의 매개가 없는 서구 국가들의 사회주의 이행 역시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킨, 277쪽.)

15) 체르니셰프스끼의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는 Copleston(1986) pp. 100-117을 참조하였음.

16) 체르니셰프스끼는 이 논문에서 헤겔 미학이 왜 오류인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헤겔의 “존재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존재 속에 그 이념이 완전하게 표명된 것을 말한다”라는 언명에 대해, 자신의 종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해서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닌 이유는 대상들의 모든 종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헤겔의 정의는 무척 광범위해서 단지 미에의 도달이 가능한 대상과 현상의 부류 중에서 최상의 대상과 현상만이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을 뿐, 그러한 대상과 현상의 부류들이 어떤 근거로 아름답고 어떤 근거로 아름답지 않은지의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체르니셰프스끼, 니콜라이(1990)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신윤곤 역, 서울: 열린책들, 29쪽).

17) 같은 책, 32쪽.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사상가와 저널리스트로서 당대 러시아 사회, 정치, 경제적 낙후성과 이념적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였고 자신들의 선전문이나 에세이를 통해 러시아 민중을 계몽하고 러시아를 변혁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저널리즘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는데, 소설도 그 중의 한 방법이었다. 물론 그들은 소설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설 창작에 활발한 열의를 보인 것도 아니고, 예술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소설은 당대 급진적 지식인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게르젠과 체르니셰프스끼의 사상적 연관성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연속성은 그들의 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두 사람이 소설을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누구의 죄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작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 이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 사상의 연속성 속의 차별성, 차별성 속의 연속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3. 『누구의 죄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

3-1.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누구의 죄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기본적인 스토리는 남녀간의 사랑과 결혼문제를 다루고 있는 애정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게르젠의 초기 소설 『누구의 죄인가?』는 불행한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네그로프(Негров) 장군 집안의 양녀인 류본까(Любонька)와 그녀의 남편 크루찌페르스끼(Круциферский),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긴장과 불안과 불행을 야기하는 벨토프(Бельтов)가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서로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되며, 결국에는 세 사람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제목대로 과연 이들의 불행에 대해 ‘누구의 죄인가’하고 묻게 되지만, 그에 대한 대답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애정에 얽힌 삼각 관계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린스끼(Белинский)가 이 소설을 높게 평가한 것도 소설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⁸⁾

체르니셰프스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역시 어긋나는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애정소설이다. 베라(Вера)와 그녀의 남편 로부호프(Лопухов), 그리고 그의 친구 끼르사노프(Кирсанов) 사이에 얽혀 있는 애정 관계가 이 소설의 주된 플롯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게르젠에게서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이며, 작가는 그들 사이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도덕적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있다. 작가는 그들의 새로운 삶과 사랑의 방식,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 합리적인 인간관계 등을 문학형식을 빌어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은 60년대 허무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서로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러시아의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이 소설을 “새로운 삶의 선언문”¹⁹⁾으로 환영했다.

게르젠의 화자도 체르니셰프스끼의 화자도 처음부터 자신들이 좋은 소설을 쓰는 데는 재주도 없고 관심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Я не умею писать повестей: может быть, именно потому мне кажется вовсе не излишним предварить рассказ некоторыми биографическими сведениями, почерпнутыми из очень верных источников.”(Герцен, с. 18), “У меня нет ни тен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аланта. Я даже и языком-то владею плохо. Но это все-таки ничего: читай, добрейшая публика! прочтешь не без пользы.”(Чернышевский, с. 35) 게르젠의 화자는 소설을 쓸 재주가 없는 대신 인물들의 전기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쓸데없는 일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체르니셰프스끼의 화자는 예술적 재능도 없고 언어에도 숙달되어 있지 못하지만, 자신의 소설을 읽는 것이 결코 이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굳이 이러한 설명까지 덧붙이며 화자는 소설의 부족한 서사 방식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소설에 제기될 서술양식의 문제들을 미리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소설을 소설적 서사로서보다는 사상적 구현으로서 보아달라는 요구일 것이다. 두 작가는 소설가가 아니라 사상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소설적으로 잘 쓰여졌는가, 잘 못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진실성

18) 서문에서 게르젠은 벨린스끼가 자신의 소설을 칭찬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Герцен, А. И.(1982) 『Кто виноват?』, Новосибирск: Западн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 12.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하겠음.

19) Пруцков, Н. И.(1978) “Властитель дум революционных поколений”, 『Что делать?』,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 11.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시하겠음.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독자들에게 그러한 진실성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두 소설에서 우리는 작가가 당대 러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물들의 삶의 과정에서, 혹은 그들의 사상 갈등이나 조화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부각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 작가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러시아인,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여성의 독립과 사회적 권리 등의 문제였다. 제카브리스트의 영원한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게르젠은 러시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정과 농노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일생을 바쳤다. “자유 의지에 관한 서한”에서 그는 인간을 자연적인 개념과 사회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 의지라고 주장한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유 의지란 환각에 불과하지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감각은 ‘짐승과 같은 꿈에서 깨어나’ 역사의 실체가 되고 있는 인간의 의식에 필요한 속성이 될 것이다. 게르젠은 “피안에서”라는 에세이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열망은 복된 삶에 대한 열망이다. 자기보존이라는 평범한 본능이 발전되어 가는 속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어떤 것이든 피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란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바라는 복된 삶은 자유와 독립이 성취된 세계이다.

게르젠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상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였으며, 이것은 소설 『누구의 죄인가?』에서 여주인공 류본카가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개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에 상처를 입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매우 특이하고 조심스럽다. “조화로운 화음 속의 불협화음”(41)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류본카가 이처럼 집안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의 출신이 사생아라는 남다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르젠은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내면에 충만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류본카는 다른 환경에서였다더라면 분명 훌륭하게 자라났을 것이다. 그

러나 네그로프 집안의 가부장적 억압과 정신적 폭력은 그녀의 삶을 억누르고 또한 권태롭게 만들었다. 네그로프의 집안은 러시아의 전형적인 귀족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산적인 것도 창조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위와 게으름, 지루함만이 지배하고 있을 뿐이며,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따분한 인생이 이어질 뿐이다. 도시에서의 생활도 시골에서의 생활도, 결혼 전의 생활도 결혼 후의 생활도 그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의 러시아 사회는 귀족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허용했다. 아니 양산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천성적으로 악한은 아닌 그가 러시아의 가부장제와 마주치는 순간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고집이 세고 다혈질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원칙과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의문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가부장 네그로프와 그의 가족은 류본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가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전체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에 두렵다.

그러나 류본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불모성과 공허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면적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면 세계로 침잠해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위안을 얻기 시작한다. “그녀는 생각하고 꿈꾸었다.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꿈꾸었으며,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했다.”(45)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말없음과 거리 두기에 때로는 답답함을, 때로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녀를 무시하며 괴롭힌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듯 말이 없고 거리를 두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무언의 폭력 앞에 자신을 막아낼 힘이 없고 아직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기는 류본카가 결코 무지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음을, 그녀가 얼마나 외부의 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지, 그녀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은 그녀를 더욱 힘들고 슬프게 만들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무지와 이기심, 탐욕 때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고통스러운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무시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구축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던 류본카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즉 남편이 될 끄루찌페르스끼의 등장으로 가능

해진다. 그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억압과 굴종으로 상징되는 네그로프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에게 자유와 정의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화자의 지적대로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생모와 함께 하녀 방에서 자라났다면 그녀의 사고의 범위는 협소해지고 영혼은 깨어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녀의 방이 아닌 아버지의 거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진다. 그녀에게 최소한의 교육의 가능성이 주어졌으며, 그녀는 자신의 입장이 처해 있는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 발전을 가져왔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어색한 신분과 지위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도록 자극했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기에 또한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벨토프의 어머니 소피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농노 출신이면서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소피야는 지적 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임을 더욱 절망적으로 느끼게 된다. 류본카와 소피야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아닌, 굴종과 굴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다. 고리끼의 표현대로 그들은 “러시아 문학에서 강하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여성들”²⁰⁾이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아지면 그들은 앞으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게르젠은 사람들의 의식과 반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전과 환경과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고, 어떤 형태로든 억압을 증오했다. 인간은 자신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조할 수 있고 개조해야 한다고 믿었다. 억압에 대한 저항과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그의 지속적인 호소는 환경에 대항해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의 소피야와 류본카의 운명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게르젠은 여성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억압적인 환경이 아직 그들의 자유에 대한 투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역시 1860년대 러시아 소설의 주요한 관심사였던 “여성의 문제”²¹⁾를 다루고 있다. 여주인공 베라는 류본카와

20) Брегова, Д. 『Кто виноват?』의 서문, с. 6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내면에 강인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다. 그녀의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다. 네그로프 집안이 전형적인 러시아 귀족들의 가부장적인 삶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면, 베라 로잘스까야(Вера Розальская) 집안은 새롭게 출현한 잡계급의 가부장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다. 류본가가 평범하고 조악한 집안에서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강인한 내면 세계를 키우고 있었듯이, 베라도 평범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 가족들과는 다른 행동의 비범함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류본가의 고통이 심리적인 폭력에 기인한다면, 베라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심리적 이면서도 동시에 육체적인 것이었다. 이 소설의 초반부는 “질식할 것 같은 러시아 가정의 독재에 대항하는 베라의 투쟁”²²⁾을 그리고 있다.

류본가가 자신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남편이 될 꼬루찌페르스끼의 출현으로 가능했듯이, 베라의 구원도 그녀의 남편이 될 로뿌호프의 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류본가와 꼬루찌페르스끼의 결혼은 우연의 산물이었던 반면, 베라와 로뿌호프는 대화를 통해 가난과 여성의 문제, 사랑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그녀의 타고난 강인함과 도덕적 우월성 위에서 로뿌호프와의 대화는 그녀의 지적인 성장을 빠른 속도로 도와주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며,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92)

엄격하고 지독한 가부장제 하에서 베라의 유일한 꿈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베라의 어머니가 그녀를 교육시킨 것은 ‘훌륭한 결혼’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교육을 통해 베라는 결혼이 러시아의 현실에서 여성의 자유를 어떻게 구속하고 속박하는 지 알게 되었으며, 인간에게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베라는 류본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베라는 자신의 자유를

21) 이 작품은 1860년대 여성의 문제를 다루던 수많은 소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당국에서는 이 소설이 러시아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Frank, J.(1990) 『*Through the Russian Prism: Essays on Literature and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90.

22) Ibid., p. 189.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을 구원하는 임무까지 부여받는다. 그녀의 첫 번째 꿈은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다. 꿈속에서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여인, 그녀는 자신을 “당신 신랑의 신부”(Я невеста твоего жениха, 123)라고 말하며 베라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을 치료한 사람이 나예요. 기억하세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들을 치료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123) 여기에서 그녀가 자신을 전에는 베라 빠블로브나(Вера Павловна)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당신 신랑의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베라 빠블로브나였을 때 그녀의 문제와 그녀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었지만, “당신 신랑의 신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베라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 일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이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등으로 끈임 없이 변하면서도 언제나 똑같은 얼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녀 자신이 구속과 억압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해 주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임을 그녀의 꿈은 암시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었을 때 세상은 더 즐겁고 생동감 넘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라는 자신의 자유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들에게 자유를 얻도록 해 줄 것이다. 류본가가 뛰어난 능력과 내면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자유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한계 속에서 파멸해 갔다면, 베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 갈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다.

3-2. 합리적 이기주의

게르젠과 체르니셰프스키는 여주인공들을 통해서 여성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권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류본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녀의 파멸로 이어지는 반면, 베라의 자유에 대한 추구는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자유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유사한 성향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인물의 운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남성 인물들의 사고와 역할이 다

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르젠과 체르니셰프스끼가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라고 파악했던 ‘이기주의’ 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게르젠은 “피안에서”라는 에세이에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은 사회적인 개념, 집합적인 명사, 어떤 표상들에 의해 희생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개인의 자유는 희생되어 왔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 싸운다. 또한 우리의 복지와 자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투쟁한다.

한 세기 전에 인간을 카톨릭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곧 개인주의의 설교였다. 마치 겸손이 굴종을 낳듯이 이 개인주의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도덕론자들은 이기주의를 나쁜 습관이라고 하지만, (...) 그들은 인간이 왜 모든 사람에게 형제가 되어야 하는 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²³⁾

자신의 독립과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이것이 곧 이기주의이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투쟁은 그것이 인류 전체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바람직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타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감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노예나 원숭이로 전락할 것이다. 게르젠의 주인공들도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두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안에서”보다 먼저 쓰여진 이 소설에서 게르젠의 이기주의 이론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게르젠의 이기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의 이익이 곧 타인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의 이기주의가 이타적 이기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상대의 파멸과 불행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의 불모성 때문이었다. 게르젠은 초기 소

23) 이디, 제임스(1992) I, 397-398쪽.

설에서 가르침보다는 러시아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답답하고 출구 없는 세상에서 질식할 듯한 삶을 살던 류분카에게 자신과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꼬루찌페르스키의 출현은 구원이었다. 그러나 꼬루찌페르스키에게는 그녀의 강인함을 받아들일 만큼의 능력이 없다. 그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줍고 당황해하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화자는 이것을 그가 자라온 환경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으로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의 삶은 “모든 가능한 가난과 궁핍과의 끊임없는 싸움”(30)의 연속이었다. 화자는 이러한 환경의 불모성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이야기한다. 꼬루찌페르스키 가족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궁핍과의 무의미한 투쟁 속에, 즉 저열한 영역에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함으로써, 영혼은 시들고 여위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대한 세상을 향해 날개 짓 한 번 하지 못하고 끝없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삶으로부터의 소외는 꼬루찌페르스키에게 세상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류분카와 꼬루찌페르스키의 결합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감정, 즉 권력자에 대한 거부감과 고통받는 자로서의 서로에 대한 공감 덕분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함으로써 꼬루찌페르스키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었고, 류분카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네그로프 집안에서의 삶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합은 결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성격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꼬루찌페르스키가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겸손한 여성적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이 처한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아름다운 꿈속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반면, 류분카는 강하고 생각이 깊으며 고통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과 투쟁의 현실, 가난하고 힘든 생활은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그는 더욱 더 꿈과 환상의 세계 속에서 평안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이었다. 그는 사랑에 자신을 전부 바쳤고, 현실의 공격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랑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도피와 안락은 벨도프의 출현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벨도프는 꼬루찌페르스키를 닮아 있다.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꼬

루쨌페르스끼의 문제가 많은 부분 그의 연약한 심성에 기인하는 반면, 벨토프의 부적응은 환경과 교육의 문제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는 본래 자신의 성격이었던 쾌활함과 충만한 생명력을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 잃어버렸다: “외적인 것, 즉 환경이 오랜 동안 그의 밝은 성격을 쥐어짜고 억지로 거기에 어두운 요소를 밀어 넣어 점점 잠식해 들어가며 불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147) 벨토프의 외모는 이러한 이중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단정하면서도 수수하게 옷을 차려 입은 서른 살 가량의 남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다. 그는 균형 잡힌 마른 체격의 사나이로, 그 얼굴에서는 선량한 눈빛과 조소를 띤 입술이, 예의바른 인간의 표정과 장난꾸러기의 표정이, 길고 고통스러운 사색의 흔적과 억제되지 않은 열정의 흔적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70)

르루쨌페르스끼의 어린 심성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유리시켜 놓았지만, 벨토프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욕 때문에 오히려 크나큰 환멸을 맛보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일이 없는 인간, 남아도는 힘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짊어진 운명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인 벨토프의 내면은 이처럼 선량함과 세상을 향한 조소, 고통스러운 사색과 억제되지 않은 열정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²⁴⁾ 벨토프가 현재와 같은 성격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교육에 있다. 뛰어난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스위스인 가정교사 조제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생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지능을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81)는 것이다. 나라와 시대마다, 계층과 가정마다 필요한 교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몽상가인 가정교사는 벨토프를 러시아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교육시키지 않고, 자신과 소년의 어머니가 원하는 아이로 키워냄으로써 잘못된 성숙을 야기한 것이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으며, 삶의 어둡고 추잡한 현실에 부지런히 장막을 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년은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는 현실도피적 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며 시대착오적 인물로 자라난다.

24) 이러한 성향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벨토프를 잉여인간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Брегова의 서문, c. 7.

이처럼 화자는 벨토프의 무기력과 무위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시대적 상황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루소의 교육을 추종하는 가정교사에 의해 너무나 오랫동안 주위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별력,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 뛰어난 학식과 박식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으로 많은 일을 하는 동안 벨토프는 아무런 정리된 일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선량한 지주도, 뛰어난 군인도, 근면한 관리도 될 수 없다.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롬펜이나 노름꾼이나 방랑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진실이 진실이 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면서 벨토프는 모든 희망을 잃고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삶을 영위하게 된다. 희망도 자기 희생의 신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어린 시절 초상화 속에서 보여지던 강력한 사상을 창출할 것 같던 사색의 그림자는 그림자로 그치고 말았다. 현재의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행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그의 강력함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조차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이다. 강한 힘의 소유자 벨토프는 또 다른 내적 강인함을 소유하고 있는 류분까와 만나는 순간 강한 정신적 교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꼬루찌페르스끼는 보지 못한 그녀의 비범한 힘을 감지하고 그녀를 숭배하게 된다. 더욱이 그녀의 강함은 그녀가 책이나 사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깨우쳤다는 데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벨토프가 오랫동안 노력과 배움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녀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였던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의 정열적이 사랑이 아니라, 같은 이상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서로에게 공명하며 서로의 내부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정신적인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류분까는 자신과 꼬루찌페르스끼, 벨토프가 믿음과 사랑, 우정으로 결속되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동시에 벨토프도 사랑한다.

이들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은 모두 자유와 행복을 함께 느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자신의 기쁨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타인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꼬루찌페르스끼는 류분까의 강렬하고 대담한 영혼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는 고결한 몽상가로서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

게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였으며, 류본카는 그것이 끔찍스러운 오만이며, 감추어진 잔인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내를 미칠 듯이 사랑하지만, 그녀의 강렬한 힘을 감당할 수는 없는 꼬루찌페르스끼, 벨토프와 정신적 교감을 이루면서도 남편에 대한 연민과 동정 때문에 그를 떠날 수 없는 류본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이해 받았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벨토프, 이들의 엇갈리고 어긋난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야기하는 것이 된다. 이들이 삶이 게르쥘이 추구했던 이타적 이기주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 때문이다. 게르쥘은 가부장적인 가족, 지독한 가난, 그리고 잘못된 교육 등이 단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 사회를 쪼먹는 커다란 악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환경의 불모성 속에서 인간은 결코 이타적 이기주의자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인 ‘누구의 죄인가’하는 문제의 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고통과 삶의 파괴의 원인은 그들 모두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 중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가 이미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불행한 운명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가 양산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르쥘은 “러시아 사회주의”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과 환경과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 그러한 주장은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벨토프를 비롯하여 류본카, 꼬루찌페르스끼는 “다른 사회적 조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사회의 적극적이고 유용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다.”²⁵⁾ 화자가 독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까지 등장인물들의 전기를 통해 그들의 배경적 지식을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벨토프가 왜 잉여인간이 되었는지, 류본카가 어떻게 주위의 귀족들보다 더 강인한 내면 세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꼬루찌페르스끼가 왜 허약한 인간이 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불행한 결말은 그들이 처한 러시아적 현실, 잘못된 교육의 결과였다. 그 결과 그들은 개인적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25) Chizhevskij, D.(1974)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Russian Literature: The Age of Realism』,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p. 23.

한편 체르니셰프스키의 인물들에게서도 이기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르니셰프스키의 이기주의 이론은 게르첸과 유사하면서도, 좀 더 발전되고 논리화되어 있다. 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존재”²⁶⁾라는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진실 되고, 유일하게 실제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철학에 있어서의 인류학적 원리”²⁷⁾에서 합리적 이기주의, 혹은 이기적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체르니셰프스키는 이 논문에서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라는 문제제기로 시작하고 있다. 인간은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즐겁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쁘다.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야만 한다면 인간은 좋다. 반대로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유쾌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 인간은 나쁘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더 생각하며, 거의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희생시킨다는 생각을 배웠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주의자이다. 실제적으로 모든 분별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심이 자신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동기라는 믿음에 의하여 인도되어 왔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 공동의 정의에 속할 수 있는 선의 개념에 있어서 일정한 것, 독립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자의적인 의견에 따른 순전히 관습적인 개념이다. 개인들은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 전체나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유용한 것을 선이라고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국적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인류 일반에게 유용한 것을 선이라고 묘사한다. 인류 전체의 이익은 보다 우위에 있고, 전 국가의 공동의 이익은 개별적인 계층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으며, 더 큰 계층의 이익은 작은 계층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 인간 일반에게 유용한 것만이 참된 선으로 여겨진다. 어떤 나라나 계층의 개념들에 있어서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오류이고 환상이다.²⁸⁾

26) 이디, 제임스(1992) II, 16쪽.

27) 같은 책, 40-72쪽.

28) 이러한 체르니셰프스키의 윤리이론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나이브한 것으로 평가받

이처럼 체르니셰프스끼는 공공선을 위한 이기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 이기주의, 또는 공리적 이기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합리적 이기주의 이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로뿌호프와 끼르사노프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소설 첫 부분에서 베라와 로뿌호프는 자유와 이기심에 대해 말한다. 어머니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베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베라가 진정 원하는 삶이다. 베라에게 자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로뿌호프는 자신의 이기주의 이론에 따라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이기주의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기주의는 게르젠의 주인공들의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그들의 이기주의는 자신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나쁜 행동’, 개인적 이기주의가 되고 말았지만, 로뿌호프의 이기주의는 상대방의 선이 곧 나의 선이 되는 ‘이타적 이기주의’인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소? 그것은 상대에게 좋은 것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상대에게 유익하도록 필요한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 행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ら오. 당신에게 최선이면 나에게도 기쁨을 준다오. (266)

이것은 로뿌호프가 베라와 결혼할 당시의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은 아내가 자신의 친구인 끼르사노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행동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그는 베라가 끼르사노프를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로뿌호프는 자신이 편하고 안락하면 다른 사람들도 편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진정한 이기주의 이론에 따르자면 이러한 결론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각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타인의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뿌호프와 베라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로뿌호프가 베라를 암흑의 지하실에서 구해 준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대등하고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베라의 로뿌호프에 대한 존경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그녀가 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실수가 더 커진 것이라네. 우리 사이에 대등함은 없었네. 그녀는 나에게 대해 지나친 존경심을 보였고, 내 삶의 방식이 그녀에게 모범적으로 보였는지 내 개인적인 특성을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으로 받아들이고 한동안 그것에 이끌렸다네. (322)

로뿌호프가 인정하고 있듯이 베라는 자신을 구원해준 로뿌호프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으며, 그들 사이에 대등함은 없었다. 이것은 그 둘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구속하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만족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가장 자유롭고 편해질 것이다. 이러한 로뿌호프의 깨달음은 왜 베라가 남편이 아닌 끼르사노프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로뿌호프와 끼르사노프는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으며, 똑 같은 성격의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고 동요하지 않고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대단히 성실하다. 화자는 이들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유형(тип)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이 우리들 안에서 탄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전 시대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는 개별적인 인간들만이 있었다. 그들은 예외적인 존재였고, 예외적인 만큼 자신들을 외롭고 무기력한 존재로 느꼈다.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때로 침울해 하거나 때로 열광적이 되었으며, 낭만적이 되거나 공상에 빠지곤 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형의 주요한 특징을 가질 수 없었으며, 냉정한 실천성과 한결같은 신중한 행동, 행동이 수반된 신중함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은 최근에 탄생했다. (210)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이전 시대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에 이들은 유형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화자의 진단이다. 이전 시대에 그들은 예외적인 존재들이었

기에 외롭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그래서 홀로 고고한 감정에 휩싸이거나 낭만적 성향을 보이곤 했다. 이전 시대의 그들은 바로 크루찌페르스키나 벨또프를 말한다. 40년대 인간들은 60년대의 인간들처럼 냉철하고 실천적인 태도도 갖지 못했고,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도 갖지 못했다. 시대가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술과 방랑으로 자신들의 슬픈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유형의 인간이 전면에 등장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로뿌호프와 끼르사노프는 그러한 유형의 최초의 인간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베라도 물론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그 두 사람은 개인적인 특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형적인 보편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라는 로뿌호프를 버리고 끼르사노프를 선택한다. 왜인가? 베라와 로뿌호프, 끼르사노프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로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나 베라는 로뿌호프에 의해 구원을 받고 그와 같은 유형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었다. 로뿌호프의 깨달음대로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그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오는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고마움에서 오는 존경의 사랑이었다. 반면 끼르사노프와의 관계는 같은 유형의 인간으로서의 만남이었다. 베라는 유형적 인간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자유에 눈뜨기 시작한다.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결코 남성에게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하찮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폭력이 여성들로 하여금 “나는 안돼”라고 스스로 믿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끼르사노프는 자유로운 여성으로서의 베라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즉 로뿌호프가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면, 끼르사노프는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와 평등에 눈뜨는 베라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대등한 입장에서 만난 끼르사노프와 함께 할 때 더욱 빨리 이루어 질 것임을 알게 된다.²⁹⁾ 진정한 완전한 독립 없이는 완전한 행복이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라와 로뿌호프, 끼르사노프는 그들 사이에 얽힌 매듭을 합리적 이기주의에 따라 완벽하게 해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라와 끼르사노프는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29) 그녀는 끼르사노프와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대등해지기 위해서 남편과 같은 직업의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복은 곧 로뿌호프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은 각자가 추구하던 행복과 만족한 삶을 얻게 된다.³⁰⁾

타인의 선이 곧 나의 선이 되는 공공선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전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인민은 자신들의 이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베라의 봉제공장이다. 푸리에의 사회주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아 창조된 공동체 사회인 베라의 봉제공장이 완벽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로뿌호프와 끼르사노프의 이기주의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르니셰프스끼는 이러한 공동체 사회의 원류를 이미 러시아 안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슬라브주의자들이 예찬하고 전통을 살리고자 했던 러시아의 ‘농민공동체’(община)였다.

3-3. 농민공동체

농민공동체에 대한 믿음은 게르젠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³¹⁾라는 논문에서 게르젠은 농민공동체를 제 3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 슬라브주의자들로부터 게르젠은 농민공동체가 새롭고 더 높은 사회 형태의 배아 단계임을 받아들였다. 슬라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게르젠은 러시아 사람들이 로마의 사법적인 유산에도, 재산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에도 더럽혀

30)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 작가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는 로뿌호프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까짜(Катя)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과거에 끼르사노프의 도움으로 인생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라와 로뿌호프의 관계가 까짜와 끼르사노프에게서 똑같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베라와 까짜에게 로뿌호프와 끼르사노프는 각각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여인은 또한 여성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평등해 질 수 없는 그들의 구원자와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자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베라에게는 끼르사노프, 까짜에게는 로뿌호프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완벽한 커플을 완성시킴으로써 인물들의 불행한 결말도 피하고 새로운 인민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소설을 끝맺고 있다.

31) Walicki(1980) pp. 165-170에서 재인용.

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슬라브주의자들처럼 공동체의 자치원칙과 구성원들간의 자발적인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러시아에서 농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가공스런 현실이었고, ‘유럽적 의미’의 노동계급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 3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고, 그 결과 서구의 사회주의 개념과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전통적 집산주의 토대를 결합시키는 데 러시아의 특별한 소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르젠은 농민공동체, 농민의 희박한 사유재산권 개념, 집산주의 전통, 민중의 상호부조와 협동정신 등이 러시아의 사회혁명을 보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서 게르젠은 농노제와 자본주의 모두를 반대하고, 자연발생적 공동체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누구의 죄인가?』에서 농민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그가 유럽에 대한 환멸과 1861년의 농노해방을 경험하고 난 후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일찍부터 농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은 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농노 출신의 강인한 두 여성 류본카와 소피야를 통해서이다. 비록 그들이 환경의 억압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어떤 등장인물들보다 강인하고 의식적이며 자신의 억압과 고통의 상황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내적 자립심이나 도덕적 자질은 다른 어떤 귀족들보다 우월하다.³²⁾ 네그로프 장군 집안으로 대변되는 러시아 귀족들의 게으름이나 무위와는 대조되는 러시아 농민들의 세계, 그들은 가난하지만 성스럽고 솔직하며 고귀하다. 류본카는 농민들은 귀족들처럼 많은 교육을 받지도 새로운 사상을 접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관리나 귀족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농민들은 러시아의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게르젠의 농민공동체에 대한 믿음, 류본카의 농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체르니셰프스키의 배라에 의해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있다. 로뿌호프와 같은 인텔리겐치야들이 계획만 세우고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몸소 자신의 행동과 실천력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

32) 작가는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들에 대한 귀족들의 무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무시를 동정하고 있다. Бегрова의 서문, с. 6.

다 하겠다. 베라가 봉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품성이다. 그들은 속이 편협하지 않고 변덕스러워서도 안되며 견실하고 친절해야 한다. 작업에 능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듯 하지만, 봉제공장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베라의 봉제공장은 사회주의 사상의 훌륭한 본보기이다.³³⁾ 무엇보다도 공장 노동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이 노동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과 이익금의 분배를 실현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목표가 완성되는 순간 베라의 봉제 공장은 더 이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장 노동자들이 그녀의 계획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훌륭한 이성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라의 공장 운영 방식은 게르젠이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장점이라고 보았던 “회박한 사유재산권 개념, 집산주의 전통, 민중의 상호부조와 협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이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농민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민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음”³⁴⁾을 믿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하고 행복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곳은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없으며, 자유에 대한 억압과 폭력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며, 모든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완벽한 유토피아 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농민에 대한 믿음이 게르젠의 소설에서는 기대만으로 끝났다면,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에서는 구체적,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4. 결론

1843년 게르젠이 헤겔을 극복하고 포이에르바흐의 사상에 몰두하기 시작하던 때에 “과학에 있어서의 아마추어 정신”(Dilettantism in Science)이라는 에

33) 체르니셰프스키는 사회주의야말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성공이라고 믿었다. Пруцов, с. 15.

34) 같은 책, с. 14.

세이를 발표하는데, 이 에세이에서 게르젠은 역사를 정신의 변증법적 발전에 따른 3개의 위대한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³⁵⁾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인 즉물성의 시대이며, 두 번째 단계는 사고의 시대이고,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시대이다. 첫 번째 시기에 인간은 개인적인 관심의 세계 속에 존재하며 보편성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의 존재는 개인적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고 맹목적인 힘에 좌우된다. 자연적인 즉물성의 시대에 대한 부정은 사고와 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도래한다. 과학 덕분에 개인은 비인간적인 진실의 도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부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편성의 영역으로 상승하게 된다. 과학의 추상적인 비인간성은 의식적인 행동에 의해 부정된다. 자아는 행동을 통해 역사적 과정에 합리성과 자유를 가져오며 스스로를 실현한다. 이러한 3단계 변증법적 역사 과정을 통해 결국 게르젠은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모든 발전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인간은 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유와 행동의 존재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성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 『누구의 죄인가?』는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합의 단계로서의 행동의 시대는 아직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들이 행동을 하기에는 그들을 양산한 환경과 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 젊은이는 모두 훌륭한 잠재력과 내면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꼬루찌페르스키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류본카와 벨또프는 강인한 내적 힘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타고났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실패한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불행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특히 벨또프는 누구보다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이룩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벨또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스스로 바깥 세계와 단절하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눈과 귀를 틀어막음으로써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러시아를 쓸모 없는 국가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다. 서구주의자 게르젠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러시아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어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전제정을 고집할 경우 러시아는 3류 국가로

35) Walicki(1980) pp. 129-130에서 재인용.

전략할 것이다.

게르젠이 주장한 행동의 시대는 대신 그의 사상적 후계자인 체르니셰프스키에게서 실천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의 인물들은 게르젠이 이루고자 했던 자유와 공리적 이기주의와 농민공동체적 공동체 사회를 완벽하게 이루어낸다. 게르젠은 『누구의 죄인가?』에서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체르니셰프스키는 현실 진단에만 만족할 수는 없었다. 러시아의 현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의 원인은 너무나 자명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었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유형을 소개함으로써 러시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누구의 죄인가?』에 대한 문학적 대답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체르니셰프스키, 니콜라이(1990)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 신윤곤 역, 서울: 열린책들.

Герцен, А. И.(1982) 『Кто виноват?』, Новосибирск: Западн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Чернышевский, Н. Г.(1978) 『Что делать?』,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2. 2차 자료

아니킨, A.(1994) 『러시아 사상가들: 18, 19세기 러시아 사회. 경제 사상』, 김익희 역, 서울: 나남출판.

이디, 제임스(1992) 『러시아 철학 I, II』, 정해창 역, 서울: 고려원.

Паперно, И.(1996) 『Николай Чернышевский: Человек эпохи реал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Chizhevskij, D.(1974)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Russian Literature: The Age of Realism』,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Clayton, J. D.(1989) 『Issues in Russian Literature Before 1917』, Columbus: Slavica Publishers, Inc.

Copleston, F. C.(1986) 『Philosophy in Russia: From Herzen to Lenin and Berdyaev』,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Frank, J.(1990) 『Through the Russian Prism: Essays on Literature and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thewson, R. W.(1975) 『The Positive Hero in Russian Litera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alicki, A.(1980)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The Ideological Relativity
between A. Herzen and N. Chernyshevsky****Park, Hye-Kyung**

Alexander Herze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rogressive and radical thought in Russia in the 1840s. He always aspired liberty, equality and social justice. He was the representative of Westernizers. As a westernizer he defended the autonomy of both reason and personality and emphasized the emancipation of the individual.

In the 1860s there arose a new generation. These are called intelligentsia. They were influenced by European Nihilism, Materialism and Utilitarianism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omoting the common good, the good of society. As the radical hero of the sixties Chernyshevsky sought the liberation of human beings from individual, social and political shackles.

Both Herzen and Chernyshevsky were leading thinkers that represent the 1840s and 1860s. They deeply impressed by Feuerbach's philosophy and French socialist theory, especially that of Fourier, and believed in the possibility of Russian Socialism based on the Russian village commune. Basically they are thinkers and philosophers, but they are also famous for their novels, 『Who Is to Blame?』 and 『What Is to Be Done?』.

In 『Who is to Blame?』 Herzen deals with the unhappy marriage, the sacredness of the marriage bond. In his novel Herzen emphasized the free will of Lyubonka and criticized the education given Beltov by his mother and tutor. Beltov's fault stems from his education unsuited to Russian life and his unfilled political idealism. Both Lyubonka and Beltov are the victims of their environment.

Chernyshevsky also emphasized the individual freedom in 『What Is to Be Done?』. In the first part of the book, Vera struggles against the constraints of Russian family tyranny. But Chernyshevsky's most important thesis is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good, and how to diminish the number of the bad. Lopukhov and Kirsanov behaves only on the basis of the rational and enlightened egoism.

Herzen claimed that both egoism and altruism are rooted in human nature, but Chernyshevsky wanted to bring everything under one formula, and utilitarianism enabled him to do so.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2. 10. 12
논문심사일:	2002. 10. 25~2002. 11. 10
심사완료일:	2002. 11. 20

필자약력(박혜경)

소속:	한림대학교 교수
출신:	서울대학교
전공:	러시아 현대 소설
대표논문:	“러시아 낭만주의 산문과 푸쉬킨”(러시아연구, 2001)
대표저작:	